

여성 한부모 가정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찬인** 양정빈***

요 약

본 연구는 여성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들의 부적응 행동 정도를 고찰해보고 이러한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규명해 봄으로써 아동들의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여성 한부모가 아동의 주양육자로서 실질적인 생계 책임을 갖고 있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초등학교 4, 5, 6학년생 141명으로 유의 표집을 통해 선정되었다. 연구 결과, 아동의 학교적응력과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을수록 부적응행동은 감소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질수록, 그리고 남자 아동일수록 부적응 행동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들의 부적응 행동을 경감 혹은 예방하기 위해 여성 한부모 가정과 아동이 처해 있는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 아동의 내적인 역량강화, 부모교육을 통한 올바른 양육기술의 습득, 아동과 부모간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통한 가족 간의 결속력 강화, 그리고 아동의 학교 적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주제어 : 여성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태도, 학교적응, 부적응 행동

논문제출일 : 2010. 10. 30.

최종심사일 : 2010. 11. 28.

* 본 논문은 제 1 저자의 2010년 8월 석사학위논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했음을 밝힙니다.

** 대전광역시 하기동 성당 주임 신부, 주저자

Corresponding Author : Yang, Jung-Bin, Department of Elderly Welfare, Nam-Seoul University
331-707, 21 Mae-Ju Ri, Seongwhan-Eup, Seobuk-Gu, E-mail : yjb@nsu.ac.kr

I. 서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 여성 한부모 가정의 수는 계속 증가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가족 구조가 급변화하는 속에서 이혼, 별거, 사별과 같은 생애 위기적 상황들이 접목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인구주택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정은 약 150만 가구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가구 중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조선일보, 2010). 한부모 가정의 현황을 혼인 상태별로 살펴보면, 사별가정이 3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혼가정 29.1%, 유배우 가정 23.9%, 미혼가정 10.4% 순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 한부모 가정의 발생추이를 분석해보면, 사별은 1985년 52.2%에서 2005년 36.6%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혼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 가정은 1985년에 5.9%에서 2005년 29.1%로 약 5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이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비율 중 사별가정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혼가정의 비율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 문제, 건강 및 의료 문제, 그리고 심리·사회적 문제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는 제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부모 여성들이 저학력 소지자인 경우가 많아 취업의 관문을 넘기 힘들고,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재 상황 안에서 직장생활과 가사생활 모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직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김인순, 2003; 이송자, 2004). 또한 생계유지에 치중하다 보니 자녀에 대한 교육, 보호, 감독 등이 소홀해져 아동들이 유해한 환경에 방치되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부모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당사자인 여성의 우울감과 자존감은 물론 직장생활, 원가족 및 친구 등의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황은숙, 2006). 그러나 여성 한부모 가정이 갖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들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문제는 공공정책에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인 해결 노력이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그 동안 한부모 가정에 대한 시각은 “한부모 가족 = 결손가족 = 문제가족 = 문제아동”이라

는 식의 구조적 기능론적 관점이 주를 이루어 왔고(이애재, 2000), 한부모 가정은 양부모 가정에 비해 가족결손이라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어 구성원들이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편견이 지배적이었다(차유림, 2000). 실제 선행 연구에서도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집단으로 지적되어 왔다(김영희, 1996; 오승환, 2001). 그러나 2005년 발생한 전체 범죄 중 실부모 가족의 비율이 54.9%, 편부가 6.2%, 편모가 5.4%로 소년 범죄의 경우 실부모 가족의 비율이 한부모 가정의 비율보다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가족 구조의 결손보다는 가족의 기능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청소년위원회, 2006). 국외 연구에서도 한부모 가정과 같은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양부모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적응상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해도 그 차이는 매우 작으며 결손 전 자녀들의 적응을 통제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Amato & Keith, 1991). 또한 Horowitz(1995)는 결손 가정의 자녀들 중에도 양부모 가정의 자녀들처럼 대인관계와 학업성적, 자아 존중감 등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는 시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양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에 비해 더 많은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모든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한쪽 부모의 부재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그리고 부적응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바라봄에 있어서 아동이 어떤 가족유형 안에서 성장하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들이 무엇인지 고찰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여성 한부모 가정 아동의 부적응 행동 정도를 살펴보고,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개인 요인, 가족요인, 학교적응력, 그리고 지역사회 요인과 아동의 부적응 행동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해 봄으로써 대상자들의 문제를 경감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아동의 부적응 행동

부적응 행동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1950년대 초반까지는 사회적 부적응이라는 용어로 쓰이다가 1950년대 이후에는 Freud의 영향을 받아 정서장애, 정서적 부적응 행동으로 사용되었고, 1960년대 이후로 행동 장애, 문제 행동, 이상 행동 등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Hewett & Taylor, 1980). Geaheart와 Weishan(1976)은 부적응 행동을 아동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 발달과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퇴행적 행동으로 설명하였고, Kauffman(1993)은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으며 주어진 환경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행동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2. 한부모 가정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개인 요인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여성 한부모 가정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개인요인으로 아동의 성별, 신체적 건강과 자아존중감을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자 아동들은 정서적 문제를 많이 표출하는데 반해, 남자 아동들은 반사회적인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원영미, 1990; 황혜정, 1996). 학령기 아동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급성장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건강상태는 학습능력은 물론 아동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재임(1983)과 박혜경(2001)은 한부모 가정 아동의 건강 상태가 양부모 가정보다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모두 좋지 않으며, 발육 상황도 더 부진하다는 연구결과를 강조하면서, 가정결손이 아동의 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어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영역에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로써 개인의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핵

심적 요인으로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아동의 행복도와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아동의 학업성적과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아동 정신 건강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결정지수가 되기도 한다(정희정, 2003).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의 비교를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송양숙(2001)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부모 가정의 자녀는 일반가정의 자녀보다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나타내는 경향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2) 가족 요인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가족요인으로 형제·자매 유무, 어머니의 양육태도, 그리고 가족 기능을 설정하였다. 형제·자매는 부모나 친구가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아동은 형제와 상호 작용을 통해 중요한 사회적, 인지적 기술을 습득하고 애정, 도구적 도움, 그리고 인정 등과 같은 다양한 지지를 제공받는다(류향자, 1999). 또한 형제간의 권위적, 방어적, 경쟁적 또는 우호적 관계 경험은 가정 밖에서의 대인관계 형성에 기초가 된다(윤미경, 1997).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적·심리적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쪽 부모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자라는 아동에게 실질적인 주부양자인 여성 한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이 가족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적응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의 행동에 적절한 요구와 반응을 보이는 일관된 양육방식은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부적응적 문제행동 발생을 막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애정을 많이 받은 자녀는 우호적이고 정직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신중한 성격을 나타내며, 수용과 애정의 분위기에서 자란 아동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일반화되어 남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Roosa, Michaelles, & Tien, 1994; 박혜영, 2007). 반면에 부정적 양육방식과 관련하여, Cummings와 Davies(1994)는 부모의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가 자녀의 내적, 외현적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부모의 적대적 양육방식은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강한 위협으로 작용하여 자녀는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하고 분노와 슬픔 등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빠져있게 되거나, 부모의 적대적 태도에 반발하여 문제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적대적이고 처벌적이며 수치심을 조장하고 과잉 통제하는 양육방식은 아동의 공격성 발달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박혜영, 2007).

가족 기능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모자 가족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으로서 가족 응집성을 제시하고 있으며(고성혜·한유진, 1995),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신 건강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가족기능이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용권·박병금, 1999). 즉, 가족 구성원들 간의 심리적 유대가 높을수록 아동은 정서적·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변화된 가족 환경에 적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 아동들의 부적응 행동 발생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3) 학교 적응력

학교적응력이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전반적인 학교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이라고 보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 관계를 갖게 된다(안영복, 1984). 학교는 아동이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동시에 생의 초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으로 전환된 후 아동의 부적응 문제가 극명하게 투영되는 현장도 학교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아동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교 성적이 향상되고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최장숙, 1993).

4) 지역사회 요인

여성 한부모 가정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지역사회요인을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여부와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김정희(2000)의 연구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은 아동의 자존감과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이 여성 한부모 가정 아동들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환경은 인간이 직면한 제1차적 환경으로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 심신의 발달, 문화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경연, 1984). 특히, 아동

에게 주거환경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생활환경이므로 주거환경의 질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갑수(1985)는 불량한 주거환경, 불량한 집단 규범, 산업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해체, 부족한 청소년 공간 등이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노충래(200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원이 결여되어 있고, 지역사회가 불안정하며, 아동양육의 부담이 큰 취약지역에서는 전체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정신 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으며 아동의 부적응 행동 발생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여성 한부모가 주양육자로서 실질적인 생계 책임을 갖고 있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1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초기 설문지 문항 가운데 아동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대답하기에 부적절한 문항들을 수정하여 D광역시 소재 17개 초등학교 교장들의 협조를 받아 2010년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담임 선생님에게 설문내용과 방법, 유의점 등에 대해 설명 한 후, 아동들이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2. 주요 변수의 측정

1) 독립변수

(1) 개인 요인

개인 요인은 아동의 성별, 신체적 건강, 자아존중감으로 구성되었는데 신체적 건강은 5점

척도로 구성된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자아 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 존중감 검사(Self-Esteem Scale)』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2) 가족 요인

가족 요인으로 형제·자매 유무,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 기능을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는 이시형·이세용·정현희·박현선(1997)이 우리나라에 맞게 표준화시킨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2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되어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주형은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반면에, 권위주의형과 맹종형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이다. 본 연구에서 양육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권위주의형이 .77, 민주형은 .85, 맹종형은 .63으로 각각 나타났다.

가족기능은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하였고, 한상분(1992)이 번안한 20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전체 점수는 응집성과 적응성 두 차원 각각에서 10점부터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응집력이 .80, 적응력은 .76으로 각각 나타났다.

(3) 학교 적응력

학교적응력은 박현선(1998)이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3가지 하위 요소(학교에 대한 흥미, 성적 및 학업, 학교 규범)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학교에 대한 흥미가 .54, 성적 및 학업은 .54, 학교규범은 .74로 각각 나타났다.

(4) 지역사회 요인

지역사회 요인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여부와 지역사회 환경만족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여부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지역사회 환경만족도는 안수인(1993)의 연구에서 사용된 주거 환경 만족도 척도 가운데 6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살고 있는 거주 환경이 쾌적함을 나타내고, 본 연구에서의 주거 환경 만족도의 신뢰도는 .76으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

아동의 부적응 행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1991)가 개발하고 유안진과 한미현(1995)이 번안한 아동 행동 평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 List, CBCL)를 사용하였다. CBCL은 종전의 외현화 장애와 내현화 장애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던 아동행동평가척도(Achenbach & Edelbrock, 1979)를 9가지 유형으로 좀 더 세분화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유안진과 한미현(1995)은 CBCL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 8개의 핵심 증후군과 1개의 불특정문제 등 9개 요인¹⁾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연구에 유용하도록 타당화 과정을 거쳐 선정된 문항 중에서 부적응 행동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선택된 4개요인(불안행동, 비행행동, 공격행동, 위축행동)에 관한 44개 문항을 종속변수의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아동의 부적응 행동 중 불안행동이 .89, 비행행동이 .76, 공격행동이 .90, 위축행동이 .89로 각각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부적응 행동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고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개인 요인, 가족 요인, 학교 적응력, 지역사회 요인들과 아동의 부적응 행동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어슨 적률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였고, 독립 변수들의 각 특성에 따른 부적응 행동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도출된 9개 요인은 불안행동, 과잉행동, 미성숙행동, 비행, 공격행동, 위축행동, 사고문제, 신체증상, 불특정행동문제 등이며, 총 9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는 총 141명으로 남자가 64명(45.4%), 여자가 77명(54.6%)였고, 학년별로는 6학년이 60명(42.6%), 5학년이 46명(32.6%), 4학년이 32명(22.7%)이었다. 아동들이 지각하는 신체적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고, 형제·자매수는 1명인 경우가 64명(45.4%), 어머니의 연령은 40대가 46.1%로 각각 제일 많았다. 아동들이 지각하는 경제적 상태는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아동이 50.4%, ‘잘사는 편이다’가 22.7%로 양호한 편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조사 대상 아동의 개인의 특성

(N=141)

변 수	구 분	빈수(명수)	비율(%)
성 별	남자	64	45.4
	여자	77	54.6
학 년	4학년	32	22.7
	5학년	46	32.6
	6학년	60	42.6
	무응답	3	2.1
신체적 건강	매우건강하다	47	33.3
	건강하다	58	41.1
	보통이다	34	24.1
	건강하지않다	2	1.4
형제·자매 수	없는 경우	19	13.5
	1명	64	45.4
	2명	28	19.9
	3명 이상	30	21.3
어머니 연령	30 대	53	37.6
	40 대	65	46.1
	50 대	6	4.3
	60 대	17	12.1
경제적 수준	아주 잘사는 편이다	5	3.5
	잘사는 편이다	32	22.7
	보통이다	71	50.4
	어려운 편이다	28	19.9
	아주 어려운 편이다	4	2.8
	무응답	1	.7

2. 조사 대상 아동의 부적응 행동 정도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조사 대상자들의 부적응 행동 전체 평균은 2.01로 나타나 부적응 행동 정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부적응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의 하위 영역 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불안행동이 2.43, 비행행동 1.99, 공격행동, 1.56, 위축행동이 1.89로 각각 나타나 여성 한부모 가정 아동들이 나타내는 부적응 행동 유형 중 불안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적응 정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공격행동으로 나타나는 부적응 정도는 제일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여성 한부모 가정의 아동 부적응 행동의 정도

(N=141)

	하위범주	평균	최소	최대	표준편차
부적응 행동	불안행동	2.4286	1.00	4.36	.70983
	비행행동	1.9866	1.00	3.67	.60195
	공격행동	1.5642	1.00	3.78	.67757
	위축행동	1.8853	1.00	4.17	.73649
	전체	2.0132	1.00	3.66	.57305

3. 독립변수에 따른 부적응 행동의 차이분석

1) 개인 요인(성별, 신체적 건강, 자아존중감)에 따른 부적응 행동 차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불안행동($t = 2.173, p < 0.05$), 비행행동($t = 3.531, p < 0.01$), 공격행동($t = 3.471,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안행동의 경우 남자가 2.57, 여자가 2.31로 남학생들의 불안행동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비행행동도 남자 2.18, 여자 1.18로 남학생들의 비행행동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공격행동도 남자가 1.78, 여자가 1.39로 남학생들이 역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위축행동에서는 남자가 평균 1.98, 여자가 1.80으로 남학생들의 위축행동이 좀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아동의 부적응행동 전체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별에 따른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N=141)

아동의 부적응 행동	성별	빈수(명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불안행동	남자	64	2.57	0.72	2.173	0.031*
	여자	77	2.31	0.69		
비행행동	남자	64	2.18	0.63	3.531	0.001**
	여자	77	1.83	0.53		
공격행동	남자	64	1.78	0.76	3.471	0.001**
	여자	77	1.39	0.54		
위축행동	남자	64	1.98	0.72	1.462	0.146
	여자	77	1.80	0.75		
전체 부적응행동	남자	64	2.1271	0.60	3.165	0.002
	여자	77	1.8324	0.51		

* $p < 0.05$, ** $p < 0.01$, *** $p < 0.001$

다음으로 <표 4>와 같이 아동의 신체적 건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 = 4.026$, $p < 0.05$). 좀 더 구체적으로 신체적 건강에 따른 부적응행동 하위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 불안행동($F = 3.661$, $p < 0.05$), 비행행동($F = 4.098$, $p < 0.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분석을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신체적 건강이 ‘보통이하’라고 답변한 집단이 ‘매우 건강하다’라고 말한 집단보다 불안행동, 비행행동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격행동, 위축행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신체적 건강에 따른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분산분석

(N=141)

아동의 부적응 행동	신체적 건강	빈수 (명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다중비교 Shceffe
불안행동	매우 건강하다a	47	2.21	0.74	3.661	0.028*	a > c
	건강하다b	58	2.50	0.65			
	보통이하c	36	2.59	0.70			
	합계	141	2.43	0.71			
비행행동	매우 건강하다a	47	1.87	0.57	4.098	0.019*	a > c
	건강하다b	58	1.93	0.57			
	보통이하c	36	2.23	0.64			
	합계	141	1.99	0.60			
공격행동	매우 건강하다	47	1.39	0.54	2.545	0.082	
	건강하다	58	1.61	0.72			
	보통이하	36	1.72	0.75			
	합계	141	1.56	0.68			
위축행동	매우 건강하다	47	1.72	0.68	2.133	0.122	
	건강하다	58	1.93	0.72			
	보통이하	36	2.03	0.83			
	합계	141	1.89	0.74			
전체 부적응 행동	매우 건강하다a	47	1.80	0.53	4.026	.020*	a > c
	건강하다b	58	1.99	0.54			
	보통이하c	36	2.14	0.61			
	합계	141	1.97	0.57			

* $p<0.05$, ** $p<0.01$, *** $p<0.001$

자아존중감과 부적응행동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5>과 같이, 자아존중감은 조사 대상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 하위 요인인 불안행동, 비행행동, 공격행동, 위축행동과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을수록 부적응 행동은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위축행동은 다른 하위 요인들에 비해 비교적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 자아존중감과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관계 분석

(N=141)

변수	불안행동	비행행동	공격행동	위축행동	부적응 행동
자아존중감	-.369**	-.422**	-.385**	-.540**	-.518**

* $p<0.05$, ** $p<0.01$, *** $p<0.001$

2) 가족 요인(형제·자매유무, 양육태도, 가족기능)에 따른 부적응 행동 차이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정 결과는 유의수준 0.05에서 형제·자매의 유무에 따라 불안행동($t = 2.435$, $p < 0.05$), 위축행동($t = 2.472$, $p < 0.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행동과 위축행동 모두에서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가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에 비해 불안행동, 위축행동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비행행동, 공격행동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N=141)

아동의 부적응 행동	형제·자매유무	빈수(명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불안행동	형제유	122	2.36	0.67	2.435	0.024*
	형제무	19	2.85	0.83		
비행행동	형제유	122	0.96	0.60	1.337	0.183
	형제무	19	2.16	0.57		
공격행동	형제유	122	1.54	0.64	0.951	0.343
	형제무	19	1.70	0.68		
위축행동	형제유	122	1.81	0.70	2.472	0.022*
	형제무	19	2.30	0.81		
전체 부적응 행동	형제유	122	1.92	0.55	2.416	0.017*
	형제무	19	2.25	0.59		

* $p < 0.05$, ** $p < 0.01$, *** $p < 0.001$

어머니 양육태도와 부적응 행동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인 <표 7>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불안행동, 비행행동, 공격행동, 위축행동 그리고 전체 부적응 행동과 양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p < 0.01$), 이 가운데 불안행동과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권위주의 태도를 갖고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불안행동, 비행행동, 공격행동, 위축행동과 같은 부적응 행동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민주주의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행동, 위축행동, 전체 부적응 행동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즉,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민주주의적 양육태도를 갖고 아이를 돌볼 때, 아동의 공격행동과 위축행동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어머니의 맹종적 양육태도는 부적응 행동 하위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관계에서도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가장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다른 양육태도보다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 부적응 행동의 상관관계 분석 (N=141)

요 인	불안행동	비행행동	공격행동	위축행동	전체부적응행동
권위주의적 태도	.460**	.319**	.372**	.357**	.455**
민주주의적 태도	-.081	-.153	-.172*	-.187*	-.178*
맹종적 태도	.033	.080	-.011	-.139	-.017

* $p<0.05$, ** $p<0.01$, *** $p<0.001$

가족기능과 아동의 부적응 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이 가족응집력은 아동의 불안행동, 비행행동, 위축행동, 부적응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p<0.01$). 즉, 가족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적응력은 불안행동($p<0.05$), 비행행동, 위축행동, 전체 부적응행동과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각각 나타냈다($p<0.01$). 전체 가족기능과 아동의 위축행동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 가정의 가족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위축행동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표 8> 가족 기능과 아동 부적응 행동의 상관관계 분석 (N=141)

요 인	불안행동	비행행동	공격행동	위축행동	부적응 행동
가족응집력	-.307**	-.252**	-.186*	-.323**	-.323**
가족적응력	-.185*	-.220**	-.081	-.238**	-.217**
가족기능	-.260**	-.248**	-.141	-.295**	-.285**

* $p<0.05$, ** $p<0.01$, *** $p<0.001$

3) 학교 적응력과 부적응 행동

다음 <표 1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아동의 학교흥미, 성적 및 학업, 학교규범과 부적응 행동과는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아동의 학교흥미, 성적 및 학업, 학교규

범 요인에 따라 부적응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학교규범과 부적응 행동과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부적응 행동의 하위 요인 가운데 비행 행동과는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아동이 학교규범을 잘 수행할수록 부적응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학교 적응력과 부적응 행동의 상관관계

(N=141)

요 인	불안행동	비행행동	공격행동	위축행동	부적응 행동
학교흥미	-.316**	-.480**	-.373**	-.392**	-.464**
성적 및 학업	-.234**	-.435**	-.277**	-.301**	-.369**
학교규범	-.377**	-.535**	-.534**	-.458**	-.567**
전체학교 적응력	-.418**	-.641**	-.540**	-.517**	-.629**

* $p < 0.05$, ** $p < 0.01$, *** $p < 0.001$

4) 지역사회 요인과 부적응 행동

(1) 지역아동센터 이용 여부

지역아동센터 이용 여부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정 결과를 보면, 다음 <표 10>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여부에 따라 공격행동 ($t = 2.064$, $p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안 행동, 비행행동, 위축행동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여성 한부모 아동이 양부모 가정의 아동에 비하여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 4가지 부적응 행동 중에 공격행동의 성향이 부각되어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10>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따른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N=141)

아동의 부적응 행동	지역 아동센터	빈수 (명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불안행동	예	40	2.48	0.70	0.696	0.488
	아니오	99	2.39	0.69		
비행행동	예	40	2.06	0.58	0.979	0.330
	아니오	99	1.95	0.61		
공격행동	예	40	1.78	0.81	2.064	0.044*
	아니오	99	1.48	0.60		
위축행동	예	40	1.98	0.75	1.281	0.202
	아니오	99	1.81	0.69		
전체 부적응행동	예	40	2.07	0.57	1.587	0.115
	아니오	99	1.91	0.56		

* $p<0.05$, ** $p<0.01$, *** $p<0.001$

(2)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

<표 11>을 보면, 지역사회 환경만족도와 부적응 행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고($p<0.01$), 하위 요인 가운데는 아동의 불안행동, 비행행동, 위축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불안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지역사회 환경만족도와 부적응 행동의 상관관계 (N=141)

요 인	불안행동	비행행동	공격행동	위축행동	부적응 행동
지역사회환경 만족도	-.347**	-.227**	-.153	-.281**	-.321**

* $p<0.05$, ** $p<0.01$, *** $p<0.001$

4. 여성 한부모 가정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규명하기 위한 사전분석단계로 투입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해 보았다.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경우는 독립변수들 간의 단순상관관계가 .80이상인 경우, 회귀계수의 표준

오차값이 매우 큰 경우, 표준화 회귀계수(BETA)가 ± 1.0 이상의 값을 갖는 경우 등이 있다 (최성재, 2005). 본 연구에서는 다음 <표 12>에 제시된 것과 같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어 투입된 전체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2>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수 Matrix

(N=141)

변수	성별	신체 건강	자아 존중감	형제·자매유무	권위주의형	민주주의형	맹종형	가족 응집력	학교 적응력	지역아동센터 이용 여부	지역사회환경 만족도
성별	1										
신체건강	-.037	1									
자아존중감	.078	-.225**	1								
형제·자매유무	-.068	-.204*	.077	1							
권위주의형	-.127	.113	-.121	-.121	1						
민주형	.115	-.132	-.042	-.042	-.275**	1					
맹종형	.074	-.038	.143	.051	-.077	.198*	1				
가족응집력	.062	-.093	.340**	-.079	-.354**	.505**	.091	1			
학교적응력	.220**	-.240**	.495**	.040	-.425**	.325**	.072	.406**	1		
지역아동센터 이용여부	.082	-.171*	.191*	-.009	-.151	.090	.038	.065	.188*	1	
지역사회환경 만족도	-.081	-.053	.368**	.232**	-.198*	.119	.022	.361**	.231**	.070	1

* $p < 0.05$, ** $p < 0.01$, *** $p < 0.001$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3>과 같이, 전체 회귀모형에 대한 유의성 결과는 $F = 12.977$. ($p < .001$)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 변수들이 저소득 여성가정 아동의 부적응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52.9%($R^2 = .529$)이며, 여러 변수들 가운데 성별, 자아존중감,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그리고 학교적응력이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적응행동에 대한 영향력은 학교적응력($\beta = -.365$), 자아존중감($\beta = -.254$), 권위주의적 양육태도($\beta = .223$), 성별($\beta = .158$)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학교적응력과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을수록 부적응행동은 감소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질수록, 그리고 남자아동일수록

부적응 행동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13> 다중회귀분석 결과

(N=141)

요 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2	수정된 R^2
	B	표준오차	베타			
성별	.178	.072	.158	2.491*	.529	.488
신체적 건강	.035	.048	.048	.733		
자아존중감	-.295	.087	-.254	-3.407**		
형제·자매 유무	.214	.110	.128	1.947		
권위주의형태도	.342	.107	.223	3.194**		
맹종형태도	.099	.086	.072	1.153		
민주주의태도	.065	.106	.045	.615		
가족기능	.023	.072	.026	.324		
학교적응력	-.568	.124	-.365	-4.593***		
지역아동센터이용여부	-.051	.079	-.041	-.646		
지역사회환경만족도	-.089	.078	-.081	-1.150		
$F=12.977^{***}$						

* $p<0.05$, ** $p<0.01$, *** $p<0.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 한부모 가정 아동의 부적응 행동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한부모 아동의 부적응 행동 정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 부적응 행동의 하위 유형 중 불안행동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남자가 여자보다 불안행동, 비행행동, 공격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고, 아동의 신체적 건강정도에 따라 비행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결과를 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을수록 부적응 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적응 행동 유형 중 위축행동은 다른 하위 요인들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상관계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형제·자매 유무에 따라 아동의 불안행동, 위축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결과를 보면, 아동의 주양육자인 한부모 여성이 권위주

의적 태도를 갖고 아동을 양육할수록 아동의 불안행동, 비행행동, 공격행동, 위축행동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가 민주주의적 양육태도를 갖고 아동을 대할수록 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은 불안행동, 비행행동, 위축행동 등 3가지 요인이 부적응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아동을 대하는 방식이 수용적일수록 아동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타인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부정적 양육태도를 경험한 아동은 문제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박혜영, 2007; Roosa, Michaelles, & Tien, 1994)과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학교에 대한 흥미, 성적 및 학업, 학교규범을 포함하는 학교적응력은 아동의 부적응 행동 하위 유형들과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즉, 아동의 학교 적응력 요인에 따라 부적응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학교규범과 부적응 행동과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비행행동과는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아동이 학교규범에 잘 적응할수록 부적응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적응력이 아동의 대인관계 및 행동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최장숙, 1993)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넷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여부에 따라 공격행동에 유의미한 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 환경만족정도는 아동의 불안행동, 비행행동, 위축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불안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이 아동의 자존감은 물론 사회적 기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선행 연구(김정희, 2000)와 같은 맥락을 갖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력, 자아존중감,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아동의 성별 순으로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자아존중감정도가 높을수록 부적응행동은 감소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질수록, 그리고 남자 아동인 경우 부적응 행동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이 남아인지 혹은 여아인지에 따라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차이에 따라 부적응 행동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여성 한부모 가정 아동의 부적응 행동문제를 개선하고 예방하는데 있어서 아동이 갖고 있는 개별적 상황들을 민감하게 고려한 접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 한부모 가정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취약한 환경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 활용된다면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동들에게 부재중인 아버지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제공하고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재조명하여 그것을 수용하는 재통합 기회를 마련하여 자기 성찰적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비단 아동의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환기시키는 것은 물론 자신의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차후 발생하는 또 다른 생의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재검증 할 수 있었다. 남편의 부재상황에서 주양육자와 경제적 가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자칫 아동방임과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부양해야 하는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 과정에서 더욱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한부모 여성들이 건강한 부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여성은 자녀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법과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감독과 처벌과 같은 방식보다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녀가 스스로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과업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훈육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들이 어머니로부터 받는 이와 같은 관심과 지지는 아동의 부적응 행동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족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여성 한부모 가정 아동의 부적응 행동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성 한부모인 경우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학교 차원에서 학업 증진을 위한 온·오프 라인상의 학습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지역아동센터의 학습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그리고 아동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족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또래집단의 상호지지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 째, 누구보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의 중심에 있는 한부모 여성들이 부모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세대와 문화를 뛰어 넘어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 한부모들이 부모로써의 건강한 정체성과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작업은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부모 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여성 한부모 가정의 심리적 정체성과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양된 자기 효능감은 한부모 여성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약자에서 삶의 역경과 도전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주체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 한부모 가정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육부모 당사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사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 한부모 가정이 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사회적 문제 등을 전체로써 바라보는 통합적 제도 구축을 위해 보다 풍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연. 1984. 아동의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75-88.
- 김영희. 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원에 관한 질적 내용 분석, **진주산업대학교 논문집**, 28: 245-252.
- 김인순. 2003. 한부모(편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 역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2000. 도시저소득층 지역 공부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공부방 인식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성혜·한유진. 1995. 편모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에 대한 지각. **한국청소년연구**, 20(봄): 60-73.
- 노충래. 2002.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 학대의 심각성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3: 123-154.
- 류향자. 1999. 외동아와 형제아의 성격 특성과 학교 적응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용권·박병균. 1999. 모자가족의 가족체계 유형과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구 임대아파트 거주 모자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8(1): 9-34.
- 박현선. 1998.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 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혜경. 2001. 초등학교 정상 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비교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영. 2007.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방식 및 부모갈등과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 송양숙. 2001. 결손가정아동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양식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수인. 1993.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영복. 1984. 적응 및 부적응행동의 특징과 관계 변인.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승환. 2001.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가족 기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연구- 양친가족, 편부가족, 편모가족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2: 1226-2609.
- 유안진·한미현. 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윤미경. 1997.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원영미. 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 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송자. 2004. 한부모 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태도 비교연구.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 이시형·이세용·정현희·박현선. 1997.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연구보고서.
- 이재재. 2000. 편부모 가족 기능 요인에 따른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재임. 1983. 조기부모 상실과 건강상태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희정. 2003. 한부모가족 아동의 자아 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차유림. 2000. 아동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청소년위원회. 2006. 청소년 백서.
- 최성재. 2005. 사회복지자료분석론. **나남출판**.
- 최장숙. 1993. 국민학교 아동의 충동성 성격 특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표갑수. 1985. 청소년 비행의 사회적 원인론과 처우론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론집**, 3: 153-170.
- 한상분. 1992. 아동의 자아 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유형 : Circumplex Model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은숙. 2006. 서울시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 연구. **한부모 가정연구**, 1(1): 1-34.
- 황혜정. 1996.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의 일관성 연구. **초등교육연구**, 10(1): 29-45.
- 빈곤 탓에 빠진 150만 한부모 가정. 『조선일보』. 2010. 5. 24.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78. "The classification of child psychopathology : A review and analysis of empirical efforts", *Psychological Bulletin*, 85(6), 1275-1301.
- Amato, P.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26-46.
- Cummings, I. M. & Davies, P. T. 1994. 『*Children & marital conflict. The impact of family dispute & resolu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Geaheart, B. R. & Weishan, M. W. 1976. 『*The handicapped child in the regular classroom*』. Saint Louis: The Mosby Co.
- Hewett, F. M., & Taylor, F. 1980. 『*The emotionally disturbed child in the classroom*』 (2nd ed.). Boston: Allyn & Bacon.
- Horowitz, J. A. 1995. 『*A conceptualization of parenting : Examining the single parent family, The Single Parent Families : Diversity, Myths and Realities*』. Haworth Press.
- Kauffman, J. M. 1993.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5th ed.). New York: MacMillan.
- Olson, Portner & Lavee. 1985. "FACES 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innesota.
- Roosa, E., Michael, S., & Tein, W. 1994. "Agreement between parent and child reports on parental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 Family*, 56, 341-355.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ladaptive Behaviors Of Children In Single-Mother families

Park, Chan-In* Yang, Jung-Bin**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major factors affecting maladaptive behaviors of children in single-mother families. The participants were 141 children from 4th to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Daejeon City.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severity of maladaptive behavior among participants was relatively low. Second, the analysis of variance in maladaptive behavior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ce for sex, physical health and self-esteem. Third, the family-related variables such as existence of sibling,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family functioning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dependent variable. Fourth, the extent of school adapta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maladaptive behavior of participants. Fifth, satisfaction of community environment, one of the community-related factors in this study,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dependent variable. Final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school adaptation, self-esteem and parenting attitudes, sex emerged as the major significant predictors of maladaptive behavior of children in single-mother families.

Based on the results, a more comprehensive perspective considering a child's family and community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for social work intervention. Most of all, children in single-mother households would be empowered through self-esteem improvement program and social skill program. In addition, it was recommended to provide female parents with various education programs such as good parenting skills,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efficacy improvement programs. Through these programs, single-mothers and children might strengthen their emotional ties so that they could reconstruct their vulnerable environment more productively.

Key Words : single-mother family, children, parenting attitude, school adaptation, maladaptive behavior

* Father of Hagi Dong-Catholic Church, Daejeon, Korea

**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Elderly Welfare, Nam-Seoul University